

##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 월 행사 안내

6월 15일(주일)  
정기 제직회

6월 26(목)-27일(금)  
새싹학교 미니 올림픽

6월 26일(목)  
파더와이즈/마더와이즈 자유 수료식

6월 27일(금)  
마더와이즈 동행과정 수료식

6월 28일(토)  
새가족환영회

6월 29일(주일)  
성찬주일 / 교육위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 교회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15일) 경기제직회가 1시 30분에  
조이홀에서 있습니다. 2분기 결산 자료를  
원하는 제직은 사무실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4.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6월 28일(토) 2:00-6:30, 비전홀  
대상자: 2024년 7월 이후 등록하신 분  
문의: 김종국 집사 021 654 688
5. 주방 봉사자 모집합니다.  
주일 3부 커피 준비와 친교실 정리 정돈  
해주실 봉사자를 구합니다.  
문의: 지영철 021 0275 0720
6. 2025년 1부 예배(8시) 경배와 찬양으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분: 싱어  
문의: 김진영 집사 027 221 4427

## 3040 토요일

지친 일상 속,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쉼을  
누리는 시간 3040세대를 위한 특별한  
예배와 나눔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 오픈카톡(QR코드 참조)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6.28(토) 2:30-4:30pm
- 장소: 느헤미야 은혜홀
- 대상: 30-40대 성도 (아이와 함께도 환영!)
- 문의: 정민혁 집사 021 630 912



## 대양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4차 정기총회  
6.16(월) - 19(목) 퀸즈타운

##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토브키즈' 중간 시상식: 6월 25일(수) 7시
- 교육위원회: 6월 29일(주일) 1시 30분  
조이홀
- 꿈의 나라 전도학교: 7월 5일(토) 9:30-3:00

## 바누아투 산토 부족 단기선교

- 일정: 7.1(화) - 7.7(월)  
바누아투 산토단기선교를 위한 후원 모금함이  
교회사무실 앞과 친교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후원계좌: Jiwon Kim  
06-0294-0920426-01
- 문의: 이정석 집사 021 868 075

## 일대일 그림전도 양육세미나

- 일시: 7.1(화)-7.3(목) 10am - 4pm
- 장소: 오클랜드 한인교회  
(22 Edmonton Rd Henderson)
- 강사: 송상철 목사  
(새한장로교회 담임, GSGM 대표)
- 등록비: \$80 (점심식사, 교재비 포함)
- 계좌: Overflowing Church Trust Board  
06-0193-0933156-03
- 문의: 권경태 목사 021-613-998

## 교우동정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A E/C# D A<sup>7</sup>/C#

주가 보이신-생명 의-길-나 주님과-함께 -

Bm E A E<sup>7</sup>/B A/C#

상한 맘을드-리며 - 주님-앞에 - 나-가리 -

D A/C# Bm E<sup>7</sup> A

나의 의로움-이 되신주 - 그 이름- 예수 -

D A/C# Bm A<sup>7</sup>/C# D E<sup>sus4</sup> D/E E

나의 길이되-신 이-름 - 예 - - - - 수 -

A C<sup>#7</sup> F<sup>#m</sup> A/E Bm Bm/A

나의 길 오직그-가 아-시나니 - 나를 단 련하신-후-

G E<sup>7</sup> A Em<sup>7</sup> D<sup>9</sup> DA/C# Bm<sup>7</sup> E<sup>sus4</sup> E A

에 - 내 가 -정금 같 이 나-아 오리 라 -

# 목장소식

##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데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유	37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38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39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0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드레스덴	여승재	0211030655		41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42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울타리	주성은	2108354513	43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4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9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5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6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랑	11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47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2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48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3 바나바	김중국	21654688	49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4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0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5 야베스	김성민	212595119	51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윗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2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3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4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5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20 부르키나파소	권정호	21556934	56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빛	21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57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가나	이광일	212179303	58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59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0 LA	정두련	211365151	
	25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61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6 서울, 빛의 마을	전은호	2041616256	62 이레	이의섭	210497628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3 산토	조기동	2102370987	
우리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4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9 가테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5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6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월드 모로코	윤수경	272008546	67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68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33 벤엘	신규식	21417756	69 모스크	노희영	274308322	
참빛	34 섬나 호치민	나종엽	21386202	70 카이로스 발리	이경호	272341008	
	35 잇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1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6 통가	송정순	2102562581	72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73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74 그리스도의 향기 Lexall	심정임	2102386602	
교구	초원	교역자	3 교구	우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당신이 리더입니다 1  
오늘, 리더로 살라 (왕상 3:4-15)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리더임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1. 당신 자신을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보세요.

2. 하나님께서 인간에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따라 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정리해보세요.

3.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로 살기 위한 기초원리가 무엇인지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보세요.

4. 이번주 메시지를 통해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한가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b>영국</b>	<p><b>“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b>  <b>영국 청소년 45%, 친부모와 함께 살지 않아…</b>                  가정 해체 원인은 이혼이 아닌 동거</p>
<p>영국 청소년의 약 절반(45%)이 14세가 되기 전까지 친부모 두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혼이 아닌 애초에 결혼하지 않는 문화 때문이라고 영국크리스천투데이가 28일 보도했다. 영국의 결혼재단(Marriage Foundation)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가정 해체의 주된 원인이 이혼이 아닌 ‘결혼하지 않는 문화’에 있다고 분석했다.</p> <p>가족이 해체된 사례 중 결혼한 부부였던 경우는 3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었다. 다시 말해, 결혼하지 않은 커플은 결혼한 부부보다 두 배 이상 해체될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 해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그로 인해 여러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이 발생한다고 언급됐다. 빈곤, 저조한 교육성과, 열악한 정신 건강은 가족 해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출처: 복음기도신문).</p>	
<b>한국</b>	<p><b>“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b>  <b>“초고령사회 대비 불충분”… 교회가 돌봄 주체 역할을</b></p>
<p>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현실 속에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교회가 이 공백을 메우는 ‘공동체적 돌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실제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위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78%)은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p> <p>가장 우려되는 문제로는 복수응답을 포함해 ‘돌봄·간병 부담 증가’(74%)가 꼽혔다. 이어 ‘노인 빈곤 증가’(71%), ‘의료비 증가’(71%) ‘고독사 증가’(65%) 등으로 집계됐다. ‘부모를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응답자 88%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기존 일을 그만둬야 할까 봐 걱정’(80%) ‘우울감 및 스트레스’(75%) ‘가족 간 갈등’(70%) 등이 꼽혔다(출처: 국민일보).</p>	
<h2>기 도 문</h2>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국]</b> 가족의 해체로 고통 당하는 영국의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li> <li>• <b>[한국]</b> 영적 돌봄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분야에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li> <li>• <b>[교우를 위해]</b>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li> </ul>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